

위기의 연속... 경제 살리기·민생 안정 관건

평가와 과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첫 와대는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집권 2년차의 실패는 곧 정권의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정·청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보다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지난 1년에 대해 여론에서는 솔직히 시행착오를 시인하는 분위기가 있다. 10년만의 정권 교체에 따른 경험 미숙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자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는 국민적 부담과 사회적 후유증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오류는 일방통행식의 국정 운영에 따른 국민과의 소통부재, 여론 내의 정책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부자'(강남강부자) 내각으로 대표되는 '조각 파문'과 대규모 촛불시위를 초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생각이 못했던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터졌고 이는 국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25일)이 다가오는 22일 경제살리기 의지를 보여주는 문구의 현수막이 서울 중로구 길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정부체제를 가동하는 등 정권의 명운을 건 대처에 나섰다. 오호러 금융부문의 부실이 실물 분야로, 실물위기가 다시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형국이다.

국면 전환을 위해 이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집권 2년차에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개혁 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코드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국제정보원, 추경편성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으나 경제 희생의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형편이다. 오히려 유럽발(發) 악재로 잠잠하던 3월 위기설 등 금융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정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등도 원활한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을 맞아 최대한 내 경제회복과 함께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떠올랐다. /임동욱 기자 tuim@

이명박 정부 1년 주요일지

- 08. 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
- 4. 9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 4. 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 5. 22 쇠고기 파문 관련 사과 담화문 발표
- 5. 29 정부, 미 쇠고기 고시 발표
- 6. 4 興, 재보선 참패
- 6. 19 특별회견 쇠고기 파동 사과
- 7. 7 농림·복지·교육장관 교체 첫 개각 단행
- 7. 11 국회 개원연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발생
- 8. 11 정연주 KBS 사장 해임
- 10. 13 첫 라디오 연설 시작
- 09. 1. 2 신년 국정연설, 비상경제정부 선포
- 1. 19 경제팀 중심 개각 단행, 경제사령관 김만수서 윤준현으로 교체
- 2. 12 울산사고 관련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표수리



“역주행” 비판속 가시적 성과 아직은...

법과 원칙 틀잡기 사안마다 갈등 첨예

미국발 금융위기... 맥뭉춘 경제 주특기

정치분야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완전히 엇갈렸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다진 1년이었다고 자평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과거로의 역주행'이라고 부정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안정된 국정 운영의 초석을 다진 한해였다고 긍정 평가했다.

입태의 정책위의장은 22일 "이명박 정부 1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그 효과가 가시화 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집권 1년을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자율 확대에 역점을 두다 보니 대기업·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공격도 받았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속도전"이 관건이라며 "민중경제·인간·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압축했다"며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궤도를 이탈해 전속력으로 질주했던 역주행 정권"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후속 기어를 넣고 역설을 밟은 총체적 역주행이었다"며 "7%, 747 성장이란 것은 이미 물 건너 갔을 뿐 아니라 특히 일자리 문제 있어서 1년에 평균 14만개 즉, 참여정부의 반밖에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아마추어라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한 실수와 오만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사회분야

이명박 정부는 사회 분야에서도 지난 참여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시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집회 및 의사표현에 있어 법질서를 강조했으며 교육 분야에선 경쟁을 모토로 내세웠다. 이에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진보적 시민사회세력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파괴', '학교 황폐화', '가진 자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새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8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고, 이런 기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법집행의 잣대로 떠올랐다.

특히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일부 불법 양상이 드러나자 경찰은 물대포에 최루약을 섞어 분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등 엄정 대처하는 모

습을 보였다. 경찰은 촛불집회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를 받은 1천여명을 행사체벌했다.

경찰은 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올린 박모(31)씨를 허위 글을 올렸다고 구속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교육 부문에서 새 정부는 '보편성 추구'에서 '수월성 보장'으로, '규제'에서 '자유'로, '평등'에서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우선 정부 통제 아래 있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대입 업무가 지난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전격 이양됐다. 본고사 논란을 막고자 각 대학에 적용하던 '논술 가이드라인' 규제도 폐지했다.

경제분야

'경제 살리기'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아이러니하게 지난 1년 최대의 경제 대란을 맞았다.

우선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경제는 심상치 않았다. 2007년 12월부터 석 달째 경상이하가 적자를 기록하고 경기가 하강 국상을 타면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종 원자재 값이 치솟고 지난해 7월 두바이유 가격이 사상 처음 140달러를 돌파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9월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동시에 주저앉은 전대미문의 상황이 직면했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132억6천700만 달러 적자, 경상수지는 64억1천만 달러 적자를 보이면서 지난해 1997년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

난해 12월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연간 14만 5천 명이 그쳤다. 물가는 고유가와 원자재 값 급등의 여파로 지난해 4.7% 상승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중소도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5월 19일 장중 1,901.13까지 뛰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하락세로 돌아서 10월 27일 장중엔 892.16까지 곤두박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 중순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선언 직후 폭등세를 보이던 11월 24일 1,513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에 따라 작년 말 1,259.50원까지 급락했지만 최근 다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 영향으로 1,500원을 넘어서면서 3월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건설면허

- ▶ 건설업 양도 양수
- ▶ 건설업 구조조정(분할 / 합병)
- ▶ 신규취득 / 기업진단

부성 M & A ☎(02)773-5690~1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정 안명섭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풀이)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 2개월 원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25% D/C

1년과정
• 2개월 원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체 25% D/C

순경공제
• 남-1차 : 966명 2차 : 214명
• 여-1차 : 40명 2차 : 47명
• 101단-1차 : 120명 2차 : 120명

특채
• 전의경 특채 240명
• 경찰 행정학과 특채 100명
• 경찰 특공대 특채 38명

※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2010학년도 대수능 재수 정규종합반 모집

수능 최우수 드림팀 강사진 / 셔틀버스 운행 / 저녁 11:20분까지 의무 자율학습(일요일은 격주로 의무 자율학습) / 철저한 성적관리

인문계열 모집반
• 서울대+경찰대(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월 수강료:47만5천원(통일 10교시+토요일5교시 월 26일 수업))

자연계열 모집반
• 의치한의대(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개강
2월반 2월16일(월)
3월반 3월 3일(화)

★ 명예로운 학생 ★
• 재수생 전체수석 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 00군 획득
• 광주 입등학원 자연계 신동일군 (연세대 치대합격(20명 모집)/강릉대치대/단국대 치대 합격)

www.kjildeung.com

찾아오시는 길 : 전남여고 후문과 동부경찰서 사이
NAVER | 광주입등학원 | 검색!

☎ (062)227~2588(대)

227-2588